

樂府의 溫達列傳 受容樣相

金 榮 淑

<目

次>

- | | |
|----------------------|----------------|
| I. 序 言 | IV. 樂府의 傳承과 讀揚 |
| II. 溫達列傳의 性格 | V. 結 語 |
| III. 樂府에 나타난 溫達列傳 樣相 | |

I. 序 言

역사와 문학은 불가분의 관계를 지니고 있다. 인간이 살아온 자취를 사실대로 기록한 것이 역사라면, 역사도 인간의 삶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문학적 기능을 지닌다고 하겠다. 인간의 삶의 양식을 다룬다는 점에서 문학과 공통성을 지닌다. 역사 가운데는 당시의 사실을 문자로 기록한 역사도 있고, 기록되지 않고 口傳되는 역사도 있다. 수많은 사실을 모두 기록할 수 없으며, 기록하지 못할 일도 많이 있다. 문자로 기록되지 않은 것은 입과 귀를 통해서 전해지고, 전하는 사람에 의해서 虛構的인 요소가 첨가되고 사건이 변모되어져서 사실과 많이 다르게 전해지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口傳되던 것이 뒷날 다시 문자로 기록이 되어서 文獻에 실리기도 한다.

역사 가운데는 當代에 썼어진 역사도 있지만 후대에 썼어진 역사도 있다. 또 일반적인 문장으로 썼어진 역사도 있지만 시로 썼어진 역사도 있으며, 이야기의 형태로 口傳되는 역사도 있고, 노래로서 불리우는 역사도 있다. 문장으로 썼어진 역사는 三國史記를 위시한 高麗史, 王朝實錄 등 다양하다. 글로 썼어진 역사는 史實에 가깝게 寫實的으로 썼어졌기 때문에 신빙성이 높다. 三國史記, 高麗史, 王朝實錄의 한 段落한 구절이 중요시 된다. 그렇지만 글로 썼어지지 않고 口傳되는 역사나 시로 썼어진 역사는 전하는 이의 주관에 따라 여러 형태로 변전되며 때문에 史實에 대한 正確性이 결여되었다고 하겠다. 文章으로 썼어진 역사 중에서 當代에 기록되지 못하고 後代에 기록된

2 鎮南語文學(第14輯)

것도正確性이 결여되어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三國時代의 역사인 三國史記도 김부식이 舊三國史와 중국의 史料를 참고로 하여, 고려시대에 기록한 역사책이다.

역사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列傳은 司馬遷이 지은 史記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史記에서의 열전은 바로 叙事文學의 초기 단계라 할 수 있는 주인공의 一代記의인 것이다. 이러한 열전은 역사상 特記할 만한 개인의 행적을 후대에 전하여 교훈으로 삼으려는 태도에서 쓰여진 것으로, 문학이며 역사라 하겠다. 열전에 따라서는 역사적 사실에다가 허구적 요소가 조금 가미되어 재미있고 흥미있는 내용이 되게 한 경우도 있다. 역사적 사실은 흥미를 지니면서 기억하고 전달하기 쉽도록 노래나 이야기의 형식으로 틀을 갖추게 되며 문학적 표현에 대한 형성과 역사에 대한 비판적 인식에 입각하여 굴절 변모 되기도 한다.¹⁾

열전을 두고 문학이라고 수 있는 점은 무엇일까? 열전에 기록된 인물이나 사건이 당시의 사실과 꽤 같다면 이것은 원칙적으로 「문학이 아니다. 열전을 두고 문학이라 할 수 있다는 점은 열전의 인물이나 사건이 사실과 다른 허구성이 있으며, 기록한 사람이나 입으로 전하는 사람에 의해 자의적으로 변모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변모결과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다.

三國史記에는 26편의 列傳이 실려 있다. 이 중에는 사실에 아주 가까운 것도 있지만 사실로 인정하는 것 보다는 사실에 허구적 내용이 첨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도 많다. 溫達列傳은 후자에 속하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친근감을 주며 역사라기보다는 문학적 요소를 많이 지닌 설화로 인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²⁾ 이 溫達說話는 열전에 기록된 내용과 다르게 口傳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학작품으로 창작된 것도 많다. 특히 전래동화에 많다. 또 역사의 문학화에서는 抒情文學 보다는 叙事文學의 형태를 빌어서 작가의 역사관이나 인물관을 토대로 창작되는 경우가 많다. 오늘날까지 많이 창작되고 있는 역사소설이 그 좋은 예이다.

이와 같이 역사와 문학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오고 있으며, 相補的인 機能을 지닌다고 하겠다. 歷史를 作品化한 것으로는 「崔孤雲傳」 등 기타 傳文學의 散文類와 李奎報의 「東明王篇」 李承休의 「帝王韻記」 등 韵文類가 있다. 朝鮮後期에 들어서면서 文學의 흐름이 變貌되고 특히 漢詩의 素材채택 과정

1) 林在海, 〈전설과 역사〉, 《韓國文學研究入門》知識產業社, 1982, p.126.

2) 說話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溫達列傳을 溫達說話라 한다.

에서 歷史를 많이 趣向했으며 作家들의 自意識이 강조되었다. 특히 詠史樂府 가운데는 三國史記의 列傳을 수용해서 시를 쓴例가 많다.

詠史樂府에 대한 연구는 主題 素材의 變貌過程, 作家研究, 背景研究, 個別作品研究 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³⁾ 歷史의 作品化한 觀點으로는 눈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本考에서는 ‘歷史의 詩化’란 觀點에서 詠史樂府를 考察하는 일련의 작업으로서, 많은 列傳 가운데서 溫達列傳을 樂府作品에서 어떻게 受容했는지 그 样相을 考察코자 한다.

II. 溫達列傳의 性格

三國史記의 列傳은 역사기술의 하나의 형식인 紀傳體의 傳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옛날 史記의 一定한 方式을 그대로 따와서 쓴 것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문학적 측면과 역사적 측면의 두 가지로 대별된다.⁴⁾ 그러나 史記의 열전은 序, 本, 結의 세 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삼국사기의 열전은 金庾信乙支文德, 張保阜, 曺于老, 聖覺, 燕蓋蘇文, 甄萱을 제외하고는 19편 모두가 序와 本 뿐이며 結에 해당하는 評論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溫達列傳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온달의 이야기는 三尺童子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여 여러가지 형태에 의해서 전해지고 있다.

먼저 溫達列傳의 構成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樂府作家들이 列傳을 어떻게 받아 들였는가를 살피는 자료로 삼기 위해서 순서대로 차세하게 나눈 단락을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⁵⁾

3) 李慧淳, 〈韓國樂府研究 I, II〉에서 素材, 主題의 측면을 광범위하게 다루었다. 詠史樂府 연구의 가장 큰 업적이다.

白源鑄, 〈洛下生李學達研究〉~實學派文學의 一例~, 成均館大學院 碩士論文, 1981
沈慶昊, 〈海東樂府研究〉, 서울대 석사논문, 1981.

金宗鎮, 〈海東樂府를 통해 본 星湖의 歷史 및 現實認識〉 《始林》, 慶州大學 1982.

尹榮王, 〈東都樂府研究〉, 《新羅伽倻文化》12輯, 嶺南大新羅伽倻文化研究所 1981.

金相洪, 〈丁茶山의 樂府詩研究〉, 南國大 논문집 13,

拙稿 〈嶺南樂府研究〉 《嶺南語文學會》 10輯 嶺南語文學會 1983.

4) 朴斗抱, 〈三國史記 列傳의 説話性〉, 尹榮王, 〈三國史記 列傳 ‘金庾信’條〉, 権五星, 〈三國史記 列傳의 文學的研究〉 등은 문학적 측면에서 다루었고 李基白, 〈溫達傳의 檢討〉 李成珪, 〈史記에 있어서 역사와 인간〉 등은 역사적 측면에서 다루었다.

5) 3절에서 제시되는 단락 번호는 바로 이 열전의 단락번호이다.

- ① 온달은 고구려 평강왕 시대의 인물(溫達 高句麗平岡王時人也)
- ② 얼굴과 마음씨(容貌龍鍾可笑 中心則眸然)
- ③ 가정극빈, 결식으로 모친 봉양(家甚貧 常乞食以養母 破衫弊履 往來於市井間)
- ④ 세상사람들 온달을 회통(時人目之爲愚溫達)
- ⑤ 평강공주 잘 울다. (平岡王少女兒好啼)
- ⑥ 딸이 크면 온달에게 시집 보낸다는 평강왕의 농담(王戲曰 汝常啼聒我耳 長必不世得爲士大夫妻 當歸之愚溫達 王每言之)
- ⑦ 공주의 혼담(及女年二八 欲下嫁於上部高氏)
- ⑧ 평강왕에 항의하는 공주(公主對曰 大王常語 汝必爲溫達之婦 今何故改前言乎 匹夫猶不欲食言 況至尊乎 故曰王者無戲言 今大王之命謬矣 妾不敢祇承)
- ⑨ 평강왕의 노함(王怒曰 汝不從我教則 固不得爲吾女也 安用同居 宜從汝所適矣)
- ⑩ 공주의 출궁(於是公主以寶釧數十枚繫肘後 出宮獨行)
- ⑪ 공주 온달집을 찾아 노모와 대담(路遇一人 問溫達之家 乃行至其家 見盲老母 近前拜問其子所在 老母對曰 吾子貧且陋 非貴人之所可近 今聞子之臭 芬馥異常 接子之手 柔滑如綿 必天下之貴人也 因誰之佛以至於此乎 唯我息不忍餓 取榆皮於山林 久而未還 公主出行 至山下)
- ⑫ 공주와 온달의 만남(見溫達負榆皮而來 公主與之言懷)
- ⑬ 온달의 공주의 심(溫達勃然曰 此非幼女子所宜行 必非人也 狐鬼也 勿追我也 遂行不顧)
- ⑭ 공주, 돌아와 문밖에서 차다(公主獨歸 宿柴門下)
- ⑮ 공주, 다음날 온달 모자와 이야기(明朝更入 與母子備言之 溫達依違未決)
- ⑯ 배필이 될 수 없다는 온달의 모친(其母曰 吾息至陋 不足爲貴人匹 吾家至寢 固不宜貴人居)
- ⑰ 공주의 설득(公主對曰 古人言 一斗粟可脊 一尺布猶可縫 則苟爲同心 何必富貴 然後可共乎)
- ⑱ 공주의 살림장만(乃賣金釧 買得田宅奴婢牛馬器物 資用完備)
- ⑲ 말사기와 말이야기(公主語溫達曰 慎勿買市人馬 須擇國馬病廩而見放者 而後換之 溫達如其言 公主養詞甚勤 馬日肥且壯)
- ⑳ 고구려 제천행사(高句麗常以春三月三日 會獵樂浪之丘 以所獲猪鹿 祭天及山川神 至其日王出獵 群臣及五部兵士皆從)
- ㉑ 온달의 多獲(於是溫達以所養之馬 隨行其馳騁 常在前 所獲亦多 他無若者)
- ㉒ 왕이 불러 성명을 묻고 놀람(王召來問姓名 驚且異之)
- ㉓ 온달의 出戰과 先鋒(時後周武帝出師伐遼東 王領軍逆戰於肆山之野溫達爲先鋒)
- ㉔ 제 1 위의 戰功(疾闢斬數十餘級 諸軍乘勝奮擊大克 及論功 無不以爲溫達第一)
- ㉕ 왕이 기뻐하며 맞이 함(王嘉歎之曰 是吾女婿也 備禮迎之 賜爵爲大兄 由此寵榮

尤渥 威權日盛)

㊶ 양강왕 즉위하자 온달 잃은 땅 되찾도록 정원(及陽岡王即位 溫達奏曰 唯新羅割我漢北之地爲郡縣百姓痛恨 未嘗忘父母之國願大王不以愚不肖 授之以兵 一往必還吾地 王許焉)

㊷ 出戰에 앞선 온달의 맹세(溫達臨行誓曰 離立峴竹嶺已西 不歸於我 則不返也)

㊸ 出戰과 戰死(遂行與羅軍 戰於阿且城下 爲流矢所中 路而死)

㊹ 관이 움직이지 않자 공주가 어루만짐(欲葬柩不肯動 公主來撫棺曰 死生決矣於乎歸矣 遂舉而窓)

㊺ 대왕이 듣고 슬퍼함(大王聞之 悲動)

이러한 구성에서 볼 때 온달열전은 溫達의 一代記인데 평강공주의 비중을 대단히 크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반부의 처음은 온달의 어릴 때의 모습을 해학적으로 나타내어, 천하고 못생긴 인물이어서, 읽는이로 하여금 위대한 인물로 성장할 지 예측을 할 수 없게 한다. 愚溫達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어리석은 온달 또는 바보 온달로 이해할 수 있으며, 설화나 동화에는 바보온달로 나온다. 그러나 평강공주를 맞이하고부터는 사건이 反轉되어 용맹한 인물로 바뀌어 국가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역사적 위인으로 나타나 있다.

단편의 列傳인 온달전의 구성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온달열전은 주인공 온달과 평강공주의 모습을 描寫하는데서부터 하나의 文學으로 출발한다. 두 주인공에서 느껴지는 상징성은 온달열전 밖의 작품외적 요소에까지 그 영향을 끼친다고 보아진다. 즉 공주란 고귀하고 귀족적인 인간과 온달이란 비속하고 천민적인 인간의 화합부터가 역사적 사실이나 실증적인 사건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이다. 또 열전의 구성이 전반부에서는 두 주인공을 對照的으로 묘사하고, 후반부에서 두 주인공이 화합하기까지의 이야기의 전개가 역사적인 관점보다는 문학적인 관점에서 기술된 것이다. 사건의 발단이 평강공주가 어려서부터 잘 울고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에서 시작되기에 울보에 얹힌 다른 전설적이고 문학적인 사건을 상징적으로 함께 보여준다. 이러한 점은 온달 열전이 說話인 면을 강하게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사실로 비추어 보면 온달열전은 장편의 설화였을 가능성이 크다. 이 장편의 설화가 후대에 역사로 기록이 되면서 整齊되어 일정한 傳의 틀을 구성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문학적이고 상징적인 많은 내용이 없어지고 가장 중요시되는 一代記의 문격만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고 하겠다.

6 嶺南語文學(第41輯)

이러한 주인공의 묘사, 사건의 진행에 따른 列傳의 虛構成을 정리하면 다음과의 몇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주인공 온달은 용모가 못생기고 집이 가난하여 결식하며 모친을 봉양하는 천한 인물로서, 다른 열전의 남자 주인공보다 못한 인물인데 비해, 평강공주는 다른 여성보다 고귀한 인물이다. 이 두 인물이 결합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들의 결합은 공주의 능동적이고 救愛의인 행위에 의해 이루어지며, 하층 천민의 지배층과의 결연이다. 이것은 바로 신분의 上昇의 欲求의 성취라 할 수 있다.⁶⁾

둘째, 천하고 못생긴 남성과 귀하고 잘 생긴 여성과의 결합에서 女性優位의 사건 진행이 특징으로 나타난다. 온달은 부인인 평강공주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지혜와 무술을 터득하여 용맹을 멀치는 장수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여성우위의 열전으로, 조선시대에 나타난 여성우위의 소설류나 여성우위의 전설류와 그 형태가 유사하다. 여성의 능력과 지략의 우수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세째, 하층 천민 또는 못생긴 바보의 인간성을 중시해야 한다는 교훈을 보여주고 있다. ‘못생긴 바보’ ‘바보 온달’이라고 주위 사람들이 비웃고 나라의 국왕조차 하층 인간을 편시한 사실이 옳지 못함을 보여준 것이다.

네째, 온달전의 구성은 삼국사기의 다른 열전 보다도 허구적인 면을 많이 지니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온달과 평강공주의 결합 자체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며 평강공주가 家出을 해서 온달의 부인이 되기까지의 서술은 일반적인 사실 기록의 범주를 넘어선 허구성이 엿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溫達列傳은 평강공주의 지혜와 온달의 용맹을 드러내기 위한 역사 기록의 열전적 성격과 함께 허구적이고 문학적인 성격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학적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는 온달 이야기를 이야기로 받아들이기 그것이 한 개인의 역사적 전기라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III. 樂府에 나타난 溫達列傳 樣相

三國史記에 실려 있는 列傳을 수용하여 樂府를 지은 사람들이 많다. 특히

6) 權五星, 〈三國史記 列傳의 文學的 研究〉에서도 이러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조선 후기에 많이 지어진 樂府에 이런 것이 많다. 그 이외 三國遺事, 高麗史 기타 史話를 受容해서 樂府를 지은 사람들도 많다. 이러한 史話⁷⁾, 史實을 素材로 하여 지은 악부를 詠史樂府라 한다.⁸⁾ 이 詠史樂府의 名稱은 海東樂府로 된 것이 가장 많은데 우리의 역사를 素材로 지은 우리의 악부라는 뜻으로 불여진 것이다.

本考에서는 林昌澤(1682~1723)의 海東樂府에 실려 있는 ‘愚溫婦’와 李學達(1770~1834)의 海東樂府에 실려 있는 ‘愚溫達’과 李福休의 海東樂府에 실려 있는 ‘溫達行’을 對象으로 列傳의 受容樣相을 고찰코자 한다.⁹⁾

악부 고찰에 앞서 악부의 앞에 쓰여 있는 序文의 史話를 對比하여 列傳受容態度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列傳 番號	‘溫達婦’序文	‘愚溫達’序文	‘溫達行’序文
①		溫達高句麗時人	高句平原王時樂浪人
②	溫達貌龍鍾	容貌龍鍾可笑	于溫達家賓貌龍鍾
③	以養母	家貧乞食	常乞食養母
④		往來市井間時人目爲愚溫達	市井人目以愚溫達
⑤	句麗平岡王少女好啼	平原王有少女好啼	王有少女好啼
⑥	王每戲曰 汝常啼 聒我耳 當歸之溫達	王戲曰 汝每啼我聒耳 長必不得爲士大夫妻 當歸之溫達	王戲曰 汝啼惡必與愚溫達
⑦	及長擇駙馬	女年十六將嫁上部高氏	女年十六將擇嫁上卿
⑧	女曰 大王常語歸溫達 何改前言	女曰 王者無戲言	女曰 王者無戲言
⑨	王怒之	王怒	王怒 逐之
⑩	女出宮獨行	以寶釧數十繫肘後 逐之	女步行
⑪	至溫達家	尋至溫達家爲婦	至溫達家
⑫	溫達採榆皮而歸遂爲其婦		溫達方採榆皮上山 女隨之
⑬			溫達曰 深山之中豈有美女 此必

7) 歷史의 史實에 說話의 要素가 포함된 이야기를 史話라고 줄여 쓴다.

8) 李東歡, 〈朝鮮後漢詩에 있어서 民謡趨向의 搞頭〉 《韓國漢文學研究》 3, 4輯, p. 35. 趙東一, 《한국문학통사》 3, p. 254 등에서 ‘詠史樂府’란 用語를 사용한 바 있다.

9) 李慧淳 교수는 〈韓國樂府研究Ⅱ〉 (東洋學 12집, 檀國大東洋學研究所 1982)에서 序文의 내용과 시의 내용을 비교 검토하면서 임창택, 이학규의 작품을 인용한 바 있다. 李교수 연구에 도움을 받은 바 크다.

⑭		妖魅侵人 遂下山 女隨至其家 懇告其情 乃納焉
⑮		
⑯		
⑰	遂爲其婦	
⑱		女遂賣囊中金釧 買田宅奴婢器用
⑲		又使溫達 買國馬之瘦者 女親斂之 太肥盛
⑳		國俗三月三日 每遊獵祭天王出獵
㉑		溫達馳騁在前
㉒		王驚問之乃曰 吾生男也 厚餉
㉓	後周武帝 伐嶺東	後周武帝伐遼東 戰於嶽山
㉔	溫達爲先鋒疾闖斬數十級	溫達功爲第一
㉕	諸軍乘之周師大敗	
㉖	王嘉歎曰 真吾婿也 賜爵	遂賜爵大夫
㉗	大兄	
㉘	及嬰陽王位即 溫達忿新羅之侵割漢北地 請伐之	及嬰陽王即位 溫達曰 北漢郡縣 盡爲新羅 徒必復之王許之
㉙	臨行誓曰 雞立峴竹嶺以西不歸於我 則不返也	與甲兵三千人 臨行誓曰 所不以竹嶺雞峴之西 歸我者 吾無返矣
㉚	遂與羅人 戰於阿朝城下爲流矢所中而死	遂行與羅軍 遇於阿朝城 力戰而死
㉛	欲葬柩不宜動 公主撫棺曰死生決矣 呴呼 歸矣 遂舉而空焉	屍還柩不動 公主撫曰 嘘死生決矣 呴呼 歸矣 遂舉而行
㉝		

林昌澤의 ‘溫達婦’序文은 列傳을 축약한 것이다. 열전의 내용 중 ②, ③,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⑰을 수용했음을 알 수 있다. 작가가序文을 썼다고 볼 수 없기에¹⁰⁾ 작가의 수용태도는 알 수가 없으나, 列傳의 앞 부분을 주

10) 林昌澤, 《崧岳集》卷1, 22張 ‘海東樂府’란 篇題 아래 “草木無註解 入梓時補錄” 이란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作品의序文은 林昌澤이 아닌 다른 사람이 기록 했을 가능성이 있다.

로 취했음을 알 수 있다. 즉 은달과 공주의 성장에서 결혼까지의 이야기를 중요시 다룬 것이다.

李學達의 ‘愚溫達’序文도 列傳의 內容을 축약한 것이나 一代記 전체를 나타낸 것이다. 列傳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㉑, ㉔, ㉕, ㉖, ㉗, ㉙를 간략하게 나타내었는데 평강공주가 은달에게 가서 모친을 설득하여 아내가 되어 살림을 장만하고 말을 사서 먹이며 사냥하는 내용이 생략되었을 뿐 열전의 대부분을 그대로 취했다. 생략된 부분은 이학규 눈에는 중요시되지 않는 것이며 생략해도 전체적인 이야기에는 별 지장이 없는 것이다.

李福休의 악부서문도 삼국사기 열전의 내용을 취해서 쓴 것이다. 열전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⑯, ⑯, ㉑, ㉒, ㉓, ㉔, ㉕, ㉖, ㉗, ㉙ 부분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온달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몇 부분은 열전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⑭번이 열전에서는 공주가 문밖에서 잠을 자고 그 이튿날 들어와 이야기하는데 비해 이복휴의 서문은 공주가 진정을 간절히 말해 들어오도록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또 ㉒번의 내용이 왕이 불러서 성명을 물고 놀라며 이상하게 여긴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복휴의 서문에서는 은달이 제일 앞에서 칼리는 것을 보고 놀라 물는 것으로 기록되어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외에도 부분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별 차이가 없다. 이복휴가 삼국사기 열전을 보고 베껴 쓴 것 같지는 않고 口傳되거나 轉寫한 다른 책을 보고 쓴 것 같다.

이상의 對比的 고찰을 근거로 보면 文獻說話의 受容態度와 變貌過程을 밝힐 수 있다. 작품 앞에 이러한 史話를 구태여 첨부시킨 것은 독자들에게 작품을 보다 쉽게 이해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볼 수 있다.

林昌澤의 例에서처럼 作家의 의도와 상관없이 제 3자에 의해 변모된 것을 다른 文獻說話에서도 찾을 수 있다. 다행히 ‘溫達婦’序文은 三國史記 列傳과一致하는 데이 많다. 임의로 개작을 하거나 등장인물, 주제를 바꾼 것이 아니어서 작품이해에 도움을 준다. 李學達와 李福休의序文은 작가가 직접 기록한 例로서 列傳의 原文에 대단히 가까운 것이다. 愚溫達을 于溫達, 上部高氏를 上卿, 拜山을 麟山, 大兄을 大夫, 陽岡王을 嬌陽王, 阿且城을 阿朝城으로 기록하는 등 부분적인 차이가 있고 중요한 부분도 생략이 되기도 했다. 삼국사기 原文을 보고 쓰지는 않았지만 數次에 걸쳐 變轉된 列傳을 보고 쓴 것이라 생각된다.

樂府에서는 어떻게 수용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溫達婦¹¹⁾

못생긴 용모로
음식구걸 다니네
沸水의 사내이름은 온달
왕궁의 女兒는 울기를 잘 하네
딸애가 울면 임금은 늘 농담으로
이 애가 크면 온달에게 시집보내리
열여섯 살 딸 아이의 駙馬를 뽑는데
부모를 뽑는일 딸은 불가하다네
匹夫의 食言도 좋지 않거늘
대왕의 하신 말씀 잊지 않아요
산속의 榆皮도 함께 캐고요
貧賤이 무슨 방해되오리까
옛사람 가난하고 병들이도 지버리지 않았다오
앞에는 온달 있고 뒤에는 白雲婦있네

貌龍鍾

食行乞

沸水之男名溫達

王宮女兒啼復啼

兒啼王常戲

兒長必作溫達妻

兒年十六卜駙馬

卜駙馬兒不可

匹夫食言猶不祥

王常有言兒不志

山中榆皮可共采

貧賤亦如妨

古人貧病不相負

前有溫達後有白雲婦

이 시에 수용된 열전 부분의 번호를 찾아보면 ②, ③, ⑤, ⑥, ⑦, ⑧, ⑯이다.
대부분 序文의 내용을 수용해서 나타내었으나 ⑦과 ⑯은 序文에 없는 것이다

11) 林昌澤《嶺岳集》(木活字本) 卷1, 233張

다. 이것은 열전에 대한 작가의 평가 태도인 것이다. 마지막에 온달을 白雲婦와 비교하여 전후의 인물로 평가한 것은 열전에 기록된 역사의 확대 해석인 것이다.

林昌澤은 악부 제목에서부터 온달 보다는 평강공주에게 중점을 두어 나타내고 있는 점이 특이하다. 열전과 기타 다른 기록에서 모두 온달이 주인공으로 되어 있는데 비해, 이 작품에서 온달부인을 중심 인물로 다룬 것은 작가의 주관적인 온달전의 수용 태도인 것이다. 온달 보다는 온달부인의 인간적인 사랑과 남성 이상의 능력을 인정하려는 마음에서 쓰여진 작품이다.

이 작품의 형식적인 면을 보면 句法 行法, 韻法이 대단히 自由奔放함을 알 수 있다. 句法은 3·3言, 7·7言, 5·7言, 7·5言으로 이루어져 있다. 古代 악부의 장단구의 句法과 古詩의 句法을 섞어서 採用했는데 그 표현이 대단히 자유롭다. 처음 3·3言으로 시작된 부분은 漢代, 樂府의 ‘練時日’ ‘雷震震’ ‘象載驥’, ‘華輝暉’ 등의 작품과 句法이 일치하고 있으며 가운데의 5·7言의 句法도 古樂府 기타 古詩의 句法과相通한다.¹²⁾ 특히 마지막의 ‘前有溫達後有白雲婦’는 9言으로서 古詩나 樂府에서도 흔히 볼 수 없는 句法이다. 壯重하고 완만한 리듬의 음악적 효과를 생각해서 작가가 임의로 나타낸 것이다. 韵法을 보면 近體詩나 齊言의 古詩와 달리, 매우 불규칙적이고一定하지 않는 換韻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詩行이 전개되는 양상은 列傳의 전개와 類似한 順次的인 사건의 전개를 서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詩句의 표현을 보면 對를 위한 雕琢, 운율을 맞추기 위한 修飾 등은 보이지 않는다. 詩想의 含蓄, 象徵, 比喻 등을 주로 나타내는 近體詩 보다는 直說法에 가까운 賦形態¹³⁾의 표현을 보여주고 있다.

愚溫達¹⁴⁾

말랐다고 天馬駒 비웃지 말며
어리석다고 가는 걸인 조롱치 마시오.
말은 말랐어도 다시 살찌 팔방을 해치고
사람은 어리석어도 뜻을 얻으면 능히 순락할 수 있네
그때는 온달이 벼슬하기 전이어서

12) 李白의 ‘長相思’, ‘白雲歌送劉十六歸山’은 3, 5, 7言이 뒤섞인 古詩로서, 林昌澤의 작품과 句法이 類似한 면이 많다.

13) 此起句 賦란 詩經 六義의 하나인 賦體, 즉 “敷陳其事而直言之也”를 뜻한다.

14) 李學達, 《洛下生藁》〈海東樂府〉, 日本, 天理圖書館所藏本(筆寫本)

못생겼다 비웃음을 샀지만
 요양땅 10월에 칙령으로 죄를 칠 때
 죄진을 합락하고 머리벤게 그 누구 힘이던가
 왕의 사위 되었지만 교만하지 않고
 大兄 벼슬 했지만 아까움 없네
 계림관 앞 송별하던 때
 붉은기는 마치 沁園春을 연모하네
 아아!
 온달은 살아서 어리석지 않았고 죽어서는 신선됐네,

瘦莫笑天馬駒

愚莫嘲行乞夫

馬瘦復肥麥八極

人愚得志能殉國

當年溫達未致身

曾是龍鍾可笑人

遼陽十月討勅敵

陷陳斬馘伊誰力

身爲王婿不自驕

官是大兄無所惜

雞立關前送別辰

丹旌猶戀沁園春

嗚呼溫達生亦不愚死猶神

이학규는 앞의 임창택과는 반대로 온달에게 중점을 두었다. 열전의 근본 골격과 열전에서의 인물 서술관을 그대로 받아들이되 평강공주를 약화시키고 온달을 강화시킨 시를 지었다. 平岡公主에 대한 표현을 하지 않은 점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온달의 바보스런 모습, 가난한 환경, 효행, 정직, 용맹, 충성심을 찬양해서 후인들로 하여금 교훈을 삼게 하고 있다. 열전 서술의 목적에는 바로 이런 의도가 있는 것이다. 인물의 褒貶을 중요시 다룬 것이 열전이라면 이학규의 악부도 온달의 인간성을 찬양하여 전하려는 의도에서 지어진 것이라 하겠다.

1,2행과 3,4행에서는 말과 온달을 대응시켜 수척한 말도 살이 써서 팔방을 헤치고, 어리석던 온달도 뜻을 얻어 殉國까지 하였으니 어리석은 사람을 빼웃지 말라고 경계하고 있다. 어릴 땐 못생겨서 우스꽝스러웠지만 전쟁에

나아가 적을 무찌른 공로를 찬양하면서 온달은 어리석지 않다고 강조했다. 혈전이나 서문의 산문에서 볼 수 없는 노래가사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시의 형식도 앞의 林昌澤의 작품과 句法, 行法, 韻法이 類似하다. 一定한 형식에 얹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표현을 했다. 6言과 7言을 主調로 하고 있는 句法을 쓰고 있으며, 마지막 句는 '嗚呼'의歎詞를 넣어 11字에 달하는 長句를 創出했다. 앞부분의 6言은 3·3言의 結合으로 古代 樂府나 古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詩形이다. 韵法을 보면 前半部는 二句 一轉法의 換韻法을 썼고, 가운데서는 通韻, 後半部에서는 每句押韻法을 쓰는 등 한 작품 내에서 이루어진 詩의 形式이 매우 다양함을 지적할 수 있다. 詩句의 표현에서도 雕飾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오직 敘事的 展開를 중시한 史話를 詩化한 작품이다.

溫達行¹⁵⁾

쭈굴쭈굴 못생긴 사람 누구길래
스스로 배될없다 말을 하는지
부모님 찾아서 결혼말씀 옳지 않다하고
자꾸자꾸 겉는 이 어느 시골 여인인가?
여인이 어릴땐 사랑할 바 없더니
여인이 자라서도 희롱할 바 없고
다만 임금은 두가지 말할 수 없다는 것만
알고 있네
열여섯 나이에도 문밖을 나지 않았았는데
거친 산속을 부르튼 발로 어떻게 걸으려 하는지
주며니엔 팔찌 있고 상자엔 웃이 있으니
다만 같이 살다 같이 죽잔 원함 뿐이요
3월 3일 사냥에 말타고 달리니
임금님도 수레돌려 훌륭하다 칭찬하네
죽령과 계립현 찾는단 말 남기고
영혼은 가지않더니 낭자말에 돌아가네

龍鍾彼誰子

自言無配偶

探覲不用媒

步步何村女
 女生無所愛
 女長無所戲
 但識王者言無二
 生年十六不出門
 豈敢繻足荒山裏
 囊中有金籤有衣
 只願同生與同死
 三月三日獵馬驕
 天回翠鱗稱純美
 竹嶺雞峴空留誓
 魂兮不歸歸娘子

이 작품은 제목이 ‘溫達行’으로 되어 있지만 내용은 온달과 평강공주를 함께 다루고 있다. 처음 2행과 마지막 4행만 온달에 대한 서술이고 나머지는 모두 공주에 대한 내용이다. 전체적으로 보아서 온달 보다는 평강공주의 편에서 작품을 구상했다. 열전과 서문에 나타난 온달의 의도, 공주의 성장, 가출, 온달과 공주가 부부가 됨, 말타기, 임금의 칭찬, 맹세, 죽음에 대한 내용을 수용하여 시로 승화시켰다. 특히 공주의 성격과 성장, 성장후의 가출, 온달의 부인이 되려는 소원 등에서 여성적인 심상을 나타내는 말을 구사했고 동정적이고 긍정적인 면을 나타냈다. 열점이나 서문의 내용을 충실히 수용하여 전하려는 작가의 의도가 엿보이며 작가 자신의 주관적인 열전의 해석이 나타나 있지 않다. 이복휴는 다른 사람과 달리 작품 뒤에 자신의 느낌을 밝히는 評文을 기록하고 있는 점이 또한 특이하다. 앞에서 삼국사기 열전에는 평문이 없는 것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복휴는 바로 이러한 점을 생각해서인지 작품 뒤에 평문을 기술했다.¹⁶⁾

그 평문의 내용을 보면 남자가 부인 때문에 성공한 예(齊姜, 黃夫人, 柴紹公主, 梁夫人)를 열거하면서 모두 賢婦의 아내로서 內助의 힘이 커음을 강조하고 있다. 끝에는 옛날에도 관이 움직이지 않아 사람을 기다렸던 사실을 예시(張元伯, 范巨卿)하면서, 온달이 공주의 고마움을 안 것이 옛사람보다

15) 李福休, 《海東樂府》卷1, (筆寫本)

16) 男子以婦人成功者多 齊姜殺蠶妾以送重耳 黃夫人造木牛以助諸葛 柴紹公主聚軍以赴太原之役 梁夫人親執桴鼓以成韓蘄王之功……昔山陰張元伯 有柩不動 以待范巨卿之來 今公主撫死者 知感可謂幽明知己 不下范張(李福休, 海東樂府 溫達條)

못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부휴의 이러한 악부 서술 방식은 열전을 종시했으며 자기대로의 인물에 대한 평가의 관점을 제시하려는데서 기인된 것이라 하겠다.

‘溫達行’도 앞에서例擧한 두 작품처럼句法, 行法, 韻法이 대단히 자유로운 구임없는 시이다. 전반부에서는 五言句를 主調로 했고 후반부는 言句를 주조로 해서 前後 5·7言의 시행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5·7言의 雜言詩는 古代 樂府 또는 古詩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으며 5言詩 또는 7言詩의 古詩보다 더 자유로운 운율 양상을 보여준다.

5言句에서 7言句로 變轉되는 부분에서는, 3행을 一段으로 하여 5言의 2句와 7言의 1句를 조화시켜 5言에서 7言으로 變化하는 節奏를 효과있게 나타내었다.

韻法을 보면 換韻法으로 侶·女(語), 二(賓)·裏·死·美·子(紙)등 자유로운 韵法을 사용했다. 換韻에서도 二句一轉, 逐解轉韻 등一定한 形式을 취하지 않고 隔句韻에 가깝게 운을 붙였다.

以上 세편의 악부 작품 분석을 통해 몇가지 共通性을 찾을 수 있다.

主觀的인 表現보다는 客觀의인 史實을 중시했음을 알 수 있다. 열전에서 온달이 못생겼기에 시에서의 온달도 못생긴 열굴이다. 열전의 사실을 작가 마음대로 改作하거나 翻案시킬 수 없음에 따라 객관적 표현이 될 수밖에 없다. 열전에 기록된 史話가 작가들이 직접 체험한 것이 아닌 과거의 것이고 문자로 기록된 것이기에 역사의 내용을 크게 바꿀 수는 없다. 다만 악부로 再創作되는 과정에서 시적 분위기가 노래의 운율을 살리기 위한 개별적인 창작에도 상호 큰 차이가 날 수 있고 매우 주관적일 수 있다.

위에 든 세 편의 樂府는 叙事와 抒情을 아울러 지닌 시라 할 수 있다. 詩行의 배열이, 사건의 전개를 다른 열전의 순서와 유사한 면이 많고 시에서 보여주는 온달이나 평강공주의 情感的인 면과 사건 묘사의 면이 함께 나타났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한다. 그 가운데서도 사건의 서술이 더 우선적으로 종적으로 나타나 보인다면 서정적인 면은 횡적으로 함께 나타나 있다고 하겠다. 서사와 서정을 아울러 지닌 詩는 많이 있지만 역사를 느대로 한 詠史詩는 詠史樂府類에 더욱 많이 보인다.

위의 樂府 세편은 形式과 內容面에서 近體詩를 과감하게 과파한 것이다. 법과 규칙이 엄격한 균체시에 대한 반발로서 지어진 것이라 하겠다. 형식적인 분석에서 볼 수 있었듯이 句法, 行法, 韵法 그 어느 것도 과거부터 있어

은 하나의 틀에 완전히 맞는 작품이 없다. 列傳 受容의 樂府作品은 主題的 素材的側面에서 볼 때 작가들의 강한 自意識의 발로에서 나타난 것이라 하겠다. 조선 후기의 문학사의 흐름에서 자주적인 문학을 강조한 일련의 사상이 나타났고, 악부 소재를 우리의 古代史에서 택했으며, 작품의 주제가 人間性의 긍정적 표현과 相通하기에 작가들의 의식 속에 자주적인 詩에 대한 생각이 쌓여 있었다고 보아진다.

이러한 자주적인 詠史樂府의 등장과 때를 같이하여 朝鮮詩를 외치는 소리도 있었고,¹⁷⁾ 時調를 漢譯하는가 하면,¹⁸⁾ 民謡趨向의 漢詩도 擡頭되었고 우리의 국문문학이 크게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變化는 우리의 문학을 발전시켜야겠다는 하나의 脈絡 위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IV. 樂府의 傳承과 讚揚

史話를 受容해서 창작한 악부는 앞의 고찰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 史話의 주된 內容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省略 또는 追加되었음을 알수 있다.

온달열전은 樂府로 바뀌어지기 전에도 다른 列傳에 비해 큰 傳承性을 지니고 있다. 이 전승성은 앞의 항목에서 언급한 객관적 서사형태의 詩와 연결된다. 歷史를 전승하는데는 이야기 전설, 시, 노래등 여러가지 형태가 동원된다. 긴 내용을 그대로 전승시키기가 곤란하여 변모시켜 전승에 편리하도록 재구성하거나 생략하는 방법 등을 쓰게 된다. 어느 일부를 빼어 버리고, 어느 중요한 부분만 재구성하여 짧은 형태로 기억하고 전달하기에 좋은 형태로 바꾸게 된다. 이러한 형태로서 가장 좋은 것은 詩가 된다. 이 시에 리듬의 장단이 첨가되어 노래로 될 때, 가장 큰 傳承力を 지니게 된다. 노래가 지어지게 되는 것도 그 노래를 부름으로써 가사의 내용이 더욱 쉽게 전달되고 기억에 남기 때문이다.

온달 악부는 이야기로 전승되던 것을 노래로 전승시키려고 형태를 바꾼 것이다. 온달 악부는 전승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노래를 지은 사람의 관점에 따라 찬양의 기능이 동시에 발휘된다. 악부로 구성된 전체의 내용이 전

17) 丁若鏞의 ‘朝鮮詩’, 朴趾源의 ‘朝鮮風’의 詩 주장, 李鉉의 ‘朝鮮文學’ 강조 등을 들 수 있다.

18) 조선후기에 창작된 小樂府로서 申緯, 李裕元, 李裕承, 원세순의 작품을 들 수 있다.

승의 의미를 지닌다면 그 내용의 중심사상을 이루는 주체는 바로 찬양의 내용이다. 모든 악부가 다 찬양의 의미를 지녔다는 것은 아니고 특히 온달 악부에서 이점이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임창택의 ‘溫達婦’는 온달의 뜻생긴 얼굴, 결식, 沸水사람, 공주의 울음, 평강왕의 농담, 공주의 혼담, 공주의 고생 등을 전승하려 나타내었지만 찬양한 것은 바로 공주의 인간적인 숭고함과 지혜로움이다.

이학규의 ‘愚溫達’은 온달의 뜻생김, 어리석음, 결식, 임금 사위, 국가에 충성, 순국과 용맹 등을 傳承하려 하면서 온달의 인간적인 승리를 찬양한 것이라 하겠다.

이복후의 ‘溫達行’은 온달의 용모, 공주의 항의, 공주의 가출, 공주의 간청, 온달의 말타기, 전사의 내용을 전승하려 하면서 평강공주의 지혜와 온달의 인간성을 아울러 찬양한 것이다.

작가들의 글을 통해서도 詠史樂府에는 傳承의 의도가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是以地廣如尙州 名碩如安東 而並闕而無傳 若其事係本朝 則既不能探考事文
又烏知其不妄誕耶 謹慎之 至一不及焉 至如年代之舛差 事實之僞謬 或塗人聽見而譏之
未詳而併捨之 亦非世談道而知其可厭而姑傳之……¹⁹⁾

이 글은 이학규의 영남악부 서문의 일부이다. 임학택 이복후의 글은 없어서 논급할 수 없으나, 각자의 악부시집 전편에 흐르는 歷史의 傳承性을根據로 볼 때 이학규와 같이 전승에 가장 큰 목적을 두었음을 알 수 있다.

V. 結語

이상에서 소략하게 나마 검토해 본 것처럼 삼국사기의 列傳은 여러 사람에 의해서 각기 서로 다른 형태로 변모되어져 전했다. 樂府의 序文을 쓰는데도 列傳을 축약해서 쓰되 내용을 함부로 개작하거나 침가시키는 일이 없이 신중하게 다보였다. 악부 작가들이 인용한 序文에서부터 부분부분이 相異하게 기술되거나 他人에 의해 기술되는 등 열전의 변모 양상을 알 수 있으며 이를 받아들여 창작한 악부 ‘溫達婦’, ‘愚溫達’, ‘溫達行’에 나타난 수용 양상이

19) 李學達《嶺南樂府》序文 방점은 필자가 찍음.

각각 다르다. 악부에는 작가의 對人物觀, 褒貶觀등 史觀이 投影된 一面도 볼 수 있었다. 열점을 토대로 악부를 창작하면서 가장 드러내고 싶은 면을 부각시켜 시를 썼으며, 작가들의 인물관에 따라 주안을 달리하기도 했다. 임창택은 평강공주를 온달보다 우위에 두고 평강공주에 의해 온달이 성공한 면을 나타내었다. 이학규는 온달을 중심인물로 보고 온달의 남성적인 의간상을 긍정적으로 그린 면이 보이고, 이복후는 온달과 평강공주 두 사람을 고르게 나타내면서 평강공주의, 편에서 여성에 의한 남성의 성공으로 파악하고 있다.

세 작품 모두가 句法行法, 韻法등에서 近體詩의 형식을 탈피한 자유로운 형식을 創出하였다. 표현에 있어서도 雕琢이나 修飾의 흔적없이 自由奔放한 詩想을 전개시켰다. 歷史的 史實에 근거를 두고 작품을 썼기에, 客觀性이 높으며, 사건의 叙述을 詩化한 나머지 叙事性과 抒情性이 아울러 溶解된 面도 볼 수가 있다. 아울러 樂府創作의 큰 목적에 史實의 전승의 도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지적할 수가 있다.

本考에서는 문학과 역사의 相補的 연구를 위해 詠史樂府의 一片鱗인 溫達樂府만을 대상으로 살펴 보았다.²⁰⁾

세편에 불과한 작품을 가지고 列傳受容樣相을 검토함 수 있었는지 의문이 생긴다. 詠史類의 다른 樂府는 물론 詠史詩 기타 다른 문학형태까지도 역사적 사실과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史實을 어떻게 수용 변모시켰으며, 작가의 史觀이 어떠한가를 따져서 歷史와 文學의 相補的 연구가 성과있게 이루어져야겠다. 이점은 후일의 과제로 삼는다.

20) 본고는 ‘악부에 나타난 온달설화의 양상’(濟韓文化 3, 大邱韓醫科大, 1986.) 을 고쳐 쓴 것이다.